LG유플러스 "장애가정 청소년 꿈 응원합니다"

5년간 매칭 기금 적립·지원 프로그램
'두드림 U+요술통장' 신규 대상자 모집

LG유플러스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장애가정 청소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두드림 U+요술통장' 신규 대상자를 10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두드림 U+요술통장은 꿈을 가진 장애가정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5년간 장애가정 청소년과 LG유플러스 임직원, LG유플러스가 매칭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고등학교 졸업시점에 지원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장애가정 청소년이 매월 2만원을 두드림 U+요술통장에 저축하면 LG유플러스 임직원이 2만원, LG유플러스는 6만원을 함께 적립해 총 10만원이 쌓이게 된다. 5년간 모아진 600만원 이상의 매칭 기금은 청소년들의 대학 입학금이나 취업 준비자금으로 사용된다.

두드림 U+요술통장의 모집 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가정 청소년이다. 가정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각 지역별 공동수행기관 혹은 복지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두드림 U+요술통장은 30명을 모집하며 선정 결과는 내달 말 개별 안내된다.

LG유플러스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303명의 장애가정 청소년을 선발해 두드림 U+요술통장 활동을 시작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지난 7월 인천 영흥도 YMCA 수련원에서 진행된 '2018 두드림 U+요술통장 여름캠프'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우본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맞아 기념우표 발행

평화·포용 상징하는 비둘기와 손 모양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세계인권 선언 7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 68만8000장을 10월 1일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태의 심각성을 반성하기 위해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됐다.

우표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다'와 '평화와 포용'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손' 모양에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을 담았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와 차별 등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깊게 관심을 갖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오늘의 운세 10월 1일 (음 8월 22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인간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60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72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각별히 언행에 신경 써라. 84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소 49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 61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간 낭패. 73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85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나의 잘못을 반성.

호랑이 50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 마음을 편안하게. 62년생 결혼은 둘이 하는 거지만 인생은 어차피 혼자. 74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쓰자. 86년생 가정의 화목이 성공의 열쇠임을 명심.

토끼 51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63년생 뜻밖의 초대는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니 주의하라. 75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미뤄둔 일이 있다면 오늘 처리. 87년생 1%만 존중해줘도 99%의 마음을 얻는다.

용 52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64년생 사랑에는 언제나 약간의 망상이 담겨있다. 76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88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음을 명심.

뱀 53년생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65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자신. 77년생 골치 아픈 일은 배우자와 상의해서 처리. 89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 가라.

말 54년생 속이 상해도 자식 일이니 참아야 한다. 66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78년생 지나친 운동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니 주의. 90년생 오늘 준비해야 내일이 덜 힘들다는 걸 명심.

양 55년생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순간 당신의 성공은 시작된다. 67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따져야 하는 날. 79년생 돼지띠 동료가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91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원숭이 56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68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80년생 자존감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다. 92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

닭 57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69년생 가지 못한 길에 미련을 두지 말자. 81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길이 보인다. 93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의 사다리에 오를 수 없다.

개 58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70년생 인맥을 이용하여 유리한 정보를 획득한다. 82년생 남을 배려하면 그만큼 나에게 돌아온다. 94년생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오늘은 당신에게 유리하다.

돼지 59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71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 83년생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고 매사 순서대로. 95년생 하늘에 태양은 늘 떠 있음을 잊지 마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1
			3		4			
			5		6			
	1	8				4	5	
	2		4		9		6	
		4		2		9		
	7						1	
3			7		2			6
4	9		8		1		7	3

		2	5		7	9		
5			2		4			3
9		1				6		7
		4	3		1	8		
	5						3	
7		6		1		3		4
1	9						7	2
			7		8			

스도쿠 정답

3	7	2	1	6	8	5	9	4
6	9	5	2	4	7	1	8	3
4	1	8	9	3	5	6	7	2
7	3	6	8	2	1	4	5	9
8	2	9	6	1	4	3	2	7
2	5	4	3	9	6	7	1	8
9	6	3	4	5	1	2	4	5
5	4	7	9	8	3	1	6	2
1	8	2	7	6	9	4	3	5

5	3	9	2	8	7	6	4	1
1	6	2	3	9	4	7	8	5
8	4	7	5	1	6	3	2	9
9	1	8	6	7	3	4	5	2
7	2	3	4	5	9	1	6	8
6	5	4	1	2	8	9	3	7
2	7	6	9	3	5	8	1	4
3	8	1	7	4	2	5	9	6
4	9	5	8	6	1	7	2	3

6	7	3	1	8	9	4	2	5
4	1	2	5	3	7	9	6	8
5	8	9	2	6	4	7	1	3
9	3	1	8	5	2	6	4	7
2	6	4	3	7	1	8	5	9
8	5	7	4	9	6	2	3	1
7	2	6	9	1	5	3	8	4
1	9	8	6	4	3	5	7	2
3	4	5	7	2	8	1	9	6

문제 제공= 보누스

딜레마 빠진 BMW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BMW가 차량 화재로 인한 보상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차량 화재는 물론, 자동차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물론 피해자모임 등에서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BMW는 차량 화재 원인으로 'EGR 쿨러 손상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EGR 쿨러에 문제가 발생해 냉각수가 새어나오고 이 냉각수가 카본 찌꺼기와 뭉쳐서 글리콜이 되고 이게 열을 받아서 불쏘시개가 되어 흡기다기관에 연속적으로 들어가면서 동그란 구멍(천공)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협회(이호근 교수, 구본승변호사), 피해자모임(하종선 변호사), 박병일명장, 김필수 교수 등은 BMW측의 입장과 달리 다양한 원인을 주장하고 있다. 박병일 명장의 경우 플라스틱 소재가 문제라고 언급했지만 독일차 브랜드 중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가 없다.

문제는 차량 화재 발생시 원인 분석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결함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등 단순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단정짓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추석 연휴에 발생한 차량 화재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순천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의 경우 2014년식으로 소유자만 4번 바뀌었고 주행거리 13만, 사고이력 4회, 자차 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사고시 외부에서 수리를 진행했다. 평창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도 2013년식으로 소유자만 7번 변경됐다. 이 차주도 자차가입을 하지 않아 외부 수리업체에서 관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차량 모두 자차 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이고 사고 횟수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소유자 변경 7회에 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은 실운행 목적보다는 다른 이유로 중고차 시장에서 떠돌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BMW 입장에서는 차량 화재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소비자에게 '을'이 되는 모습이다. 현재 민관합동조사가 10월부터 진행되는 만큼 명확한 원인을 찾고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리콜을 진행해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ysw@metroseoul.co.kr

김상회의 四季

자족하는 마음과 행복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불 때고 한가하면 책 보고 부러울 게 없네.' 옛 선비들이 흔히 하던 말이다. 어디에도 헛된 욕심이 보이지 않는다. 선비들이 사람이 단순하거나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자기가 처한 삶의 여건 속에서 자족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지나친 욕심으로 괴로워하는 걸 경계했고 내 것이 아니면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물질의 시대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것들에 욕심내며 살아간다. 그 욕심들이 자기의 사주와 운명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그나마 낫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언감생심의 사주들이다. 관운 없는 사주를 타고났는데 높은 고위직을 바라는 직장인이 있고 재물운이 남들보다 못한데 큰 부자가 되는 헛된 꿈을 꾸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조언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운세가 받쳐주지 않으니 현실적인 타협책을 모색하라고 한들 귀에 들리겠는가. 관운 없는 사람이 직장에서 최고위직을 차지하려면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작계라도 관운이 힘을 얻는 시기에 승진을 노리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최고위직은 운세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허용된 직위 이상 욕심을 내지 말고 현실에 충실 하는 게 좋다. 자기의 것이 아닌 큰 재물을 바라거나 공부 못하는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꿈꾸는 것도 다르지 않다. 사주와 운세를 조합해서 가장 좋은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데 만족해야지 이루지 못할 걸 바라보면 괴로움만 심해질 수밖에 없다. 사주는 각자의 운세와 운명의 그릇이 어떤 크기인지 보여준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릇이 작다고 더 많은 걸 욕심낸다면 복이 아니라 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진다. 자기 그릇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인생을 만들어간다. 옛 선비들이 욕심이 없어서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족하며 어떤 게 더 나은 인생을 이루게 해주는지 배움으로 알았기에 실천한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4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53호